

“취향대로 고르세요” 에버랜드 가을단풍 추천 코스

용인 에버랜드가 숲길, 산책로, 아트랙션 등 가을 단풍 감상 코스를 추천했다. 포레스트 캠프는 9만㎡ 규모의 자연생태 숲으로 피크닉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하늘매화길에서는 1만여 그루의 나무, 코키아(떡새리)와 핑크플라워, 수크령 등 다양한 계절꽃이 있는 인생샷 명소다.



37년 만에 기업구조 바꾸는 SKT

SKT-SK스퀘어로 분할... “주주가치 극대화”

인적분할 가결...내달1일 정식 출범 기업가치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변화 SKT, AI·디지털 인프라 등 집중 SK스퀘어, 반도체 투자전문으로

SK텔레콤이 유무선 통신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나뉜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로 시작한 SK텔레콤은 출범 37년 만에 기업구조가 바뀌게 됐다. 이번 회사 분할은 미래 새 먹거리를 찾고, 제대로 된 회사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변화다.

SK텔레콤은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SK스퀘어 분할안’과 ‘주식 액면분할안’을 의결했다.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인적분할을 하는 안건 찬성률은 99.95%, 주식 액면분할 안건의 찬성률은 99.96%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기관은 물론 개인주주들도 압도적 지지를 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 설명이다.

●신설법인 SK스퀘어 11월1일 출범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11월1일 출범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SK텔레콤 0.607, SK스퀘어 0.392다. SK텔레콤은 주시 매매거래지 기간(10월26~11월26일)을 거쳐 11월29일 SK텔레콤, SK스퀘어로 각각 변경상장, 재상장한다. SK스퀘어는 박정호 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SK텔레콤은 유영상 이동통신(MNO) 사업대표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존속회사인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인프라 서비스 회사로 변신을 추진한다. 3대 핵심사업인 유무선통신, AI, 디지털인프라 서비스에 집중할



SK텔레콤이 내달 1일 유무선 통신 사업을 하는 회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회사로 나뉜다. SK텔레콤 사옥(왼쪽 사진)과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정호 CEO.



사진제공 | SKT

방침이다. 유무선통신 사업은 5G 1등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미디어 서비스의 성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AI 서비스는 8월 출시한 구독 서비스 ‘T우주’를 온오프라인 구독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와의 연계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인프라 서비스 사업은 5G 모바일에 지점퓨팅(MEC) 등을 활용해 성장성이 높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더스트리얼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0년 15조 원인 매출을 2025년 22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SK텔레콤 산하에는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피에스엔마케팅, F&U신용정보, 서비스탑, 서비스에이스, SK오앤에스 등이 위치한다.

신설회사인 SK스퀘어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전문 회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반도체와 ICT 플랫폼 사업

투자를 통해 축적한 투자 성공 DNA를 바탕으로 현재 26조 원인 순자산가치를 2025년 3배에 달하는 75조 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주요 포트폴리오 자산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할 방침이다. SK스퀘어 산하에는 16개 회사가 편제된다.

SK하이닉스와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윈스토어, 콘텐츠웨이브, 드림에스컴퍼니, SK플래닛, FSK L&S, 인크로스, 나노엔텍, 스파크플러스, SK텔레콤 CS T1 등이다.

●“주주가치 극대화”

SK텔레콤의 변화는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 4월 인적분할 추진을 처음 공식화하면서도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아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5월에는 자사주 869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10.8% 규모)를 사실상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액면 분할도 이뤄진다. 현재 500원인 보통주 1주의 가액은 100원으로 분할한다. SK텔레콤의 발행 주식 총수는 기존 7206만143주에서 3억630만715주로 늘어나고, 분할비율대로 존속회사와 신설 회사로 나뉜다. SK텔레콤의 현재 주가는 연초보다 약 30% 상승했다.

박정호 CEO는 “회사 분할의 가장 큰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이며 분할 후 통신과 투자라는 명확한 아이덴티티로 빠른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잘 키워온 포트폴리오 가치를 시장에서 더 크게 인정받고 이를 주주분들께 돌려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엔솔, GM과 볼트EV 리콜 합의 종결 배터리 교체 비용, 1조4000억 규모 추산

LG엔솔·LG전자 귀책 정도 따라 최종 분담율 결정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볼트EV의 배터리 화재 관련 합의를 마무리하고, 기업공개(IPO) 추진을 지속한다.

이 회사는 12일 “최근 당사와 LG전자, GM 3사 간 리콜 관련 합의가 순조롭게 종결됐다”고 밝혔다. 3사는 공동 조사를 통해 제품 상세 분석 및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회사 측은 “분리막 밀림과 음극막 단선이 드물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리콜 대상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초기 생산 분은 모듈·팩 전수 교체, 최근 생산 분은 진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모듈 선별 교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체 비용은 총 1조4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가 각각 약 7000억 원씩 분담한다. 회사 측은 “당사와 LG전자 간 회계적 총당금 설정시 양사 분담률은 현재 상황에서 중간값을 적용해 반영하고, 최종 분담비율은 양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GM은 당사와 10년 이상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온 중요한 고객사로, 이번 리콜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미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리콜 조치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류됐던 IPO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외과적 수술 부담 컸던 ‘유방 양성종양’ 진공보조절제술로 입원하지 않고 치료

유방 양성종양을 정확히 제거하고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는 직접적인 절제를 통한 외과적 수술로 조직을 제거했다. 하지만 절제 과정에서 통증 및 출혈 등 신체적 부담이 크고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아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칼을 대는 외과적 수술 대신 맘모톰 시술을 많이 한다.

맘모톰은 유방 종양을 바늘로 제거할 수 있는 의료 기구를 말한다. 진공 보조 절제술로도 불리는 이 시술은 1.5cm 기준 5~10분으로 소요시간이 비교적 짧고, 국소 마취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종양 의심 부위에 초음파를 이용해 얇은 바늘을 삽입하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남지 않으며, 입원하지 않고 시술을 끝낼 수 있다. 제거 가능한 종양의 크기는 제한이 없고, 악성종양 가능성이 있는 종양을 조기에 발견해 제거해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맘모톰 시술을 하면 크기가 작은 종양도 쉽게 제거가 가능하며 국소마취를 하기 때문에 시술 전 음식을 먹어도 된다. 또한 호르몬제, 당뇨약, 위장약, 혈압강화제도 시술과 상관없이 복용해도 된다.

맘모톰 시술 후 희미하게 멍이 들 수 있지만 흉터는 거의 남지 않는다. 가슴에 감은 탄력붕대는 시술 다음날 뚫는다. 다만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삼가면서 상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천안 미유외과 이승원 원장

부고

▲이철훈씨 별세. 이영규(현대자동차그룹 커뮤니케이션센터장 부사장)씨 부친상=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2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2)3010-2000

엘엔피코스메틱, ‘트리셀’ 모델로 배우 경수진 발탁

내추럴한 아름다움으로 2030에 어필 두피·모발 고민 최적화된 샴푸 제공

엘엔피코스메틱이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트리셀’ 모델로 배우 경수진을 발탁했다.

황동희 트리셀 대표는 “드라마, 예능, 영화 등 다방면의 영역에서 보여준 경수진 씨의 내추럴한 아름다움과 꾸밈없고 솔직한 매력이 2030 여성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일상을 더 아름답고 생기있게 만들어주고자 탄생한 트리셀의 전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경수진은 ‘데이&나이트 콜라겐 샴푸 론칭 캠페인’을 시작으로 ‘하루의 작은 순간 마주치는 변화로 일상에 에너지를 더한다’는 브랜드 가치를 전한다. 또 브랜드 뮤즈로서 트리셀의 다양한 활동에 함께하며 소비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엘엔피코스메틱 ‘트리셀’ 모델 경수진.

사진제공 | 트리셀

심 헤어케어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또 과거 남성 위주였던 탈모 기능성 케어 시장에 여성의 유입이 늘고 있는 것에 착안해 2030 여성을 핵심 타깃으로 정했다. 기능성 헤어케어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메디컬의 마스크팩 신화에 버금가는 브랜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첫 제품 콘셉트를 ‘데이&나이트’로 정하고, ‘데이&나이트 콜라겐 샴푸’ 시리즈를 선보였다.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자체 고객조사를 기반으로 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습관에 따라 아침저녁 샴푸 시간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제품에 요구하는 니즈가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데이 콜라겐 샴푸(스트레스 사취, 모닝 오브 리조트), 나이트 콜라겐 샴푸(미드나잇 포레스트), 콜라겐 부스트 스킵팩 등으로 구성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두피 및 모발 고민에 최적화된 맞춤형 샴푸이다. 천연 원료와 10년 이상의 연구가 담긴 기술력으로 두피 및 모발에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롯데케미칼, 페트병 수축라벨 개발 라벨 쉽게 분리...재활용 편의성 ↑

롯데케미칼이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급을 만족하는 페트병 수축라벨을 개발했다.

롯데케미칼에서 원료 개발 및 가공 기술 등을 지원하고 롯데알미늄은 인쇄와 라벨 제조 및 평가를, 동일화학공업에서는 필름 제조 생산 등을 진행했다. 3사는 지난해부터 수축라벨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위원으로부터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수축 다층 폴리에틸렌 라벨·원료제조기술’ 국가공인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

페트병 라벨은 접착식과 수축라벨 2종류가 사용된다. 페트병 수축라벨은 비접착식, 비중 1미만으로 페트병 분쇄 후 세척과정에서 페트병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수축라벨은 물 위로 뜨면서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금번 개발한 수축라벨을 통해 페트병의 재활용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품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성열 기자